

여수시 “농촌빈집 대신 팔아드립니다”

농식품부 지원 ‘빈집은행 사업’ 빈집 소유자에 문자메시지 발송 민간 플랫폼 등록 공인중개사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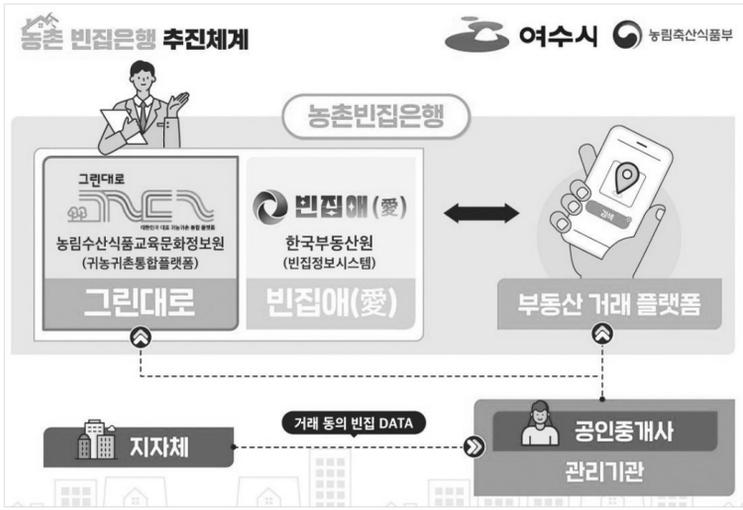
여수시가 ‘빈집은행’ 사업을 펼치며 농촌지역 빈집 거래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빈집은행’은 농촌의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가 거래 희망 동의를 제출하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후 거래가 성사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는 건당 5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1일 빈집 소유자 전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전자동의서를 통해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한다. 거래 가능 빈집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등록된다.

등록된 빈집 매물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실제로 일부 빈집은 활용 가능성이 높아 구입 문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보를 알려줄 수 없어 답답했는데 빈집은행을 통해 새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면서 “빈집 소유자와 관내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1800여 호의 빈집 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며, 오는 7월 30일까지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따뜻한 동행

고흥군 1인가구 외출 프로그램 50여명 참석 팔영산서 산림치유

고흥군이 중장년층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2일간 ‘고독사 예방 중장년 1인 가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고독사 발생률이 높은 복지사각지대 중장년층의 외출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흥의 자연과 문화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 50여명은 팔영산 치유의 숲에서 치유 걷기, 반신욕, 족욕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았다.

또한, 고흥 작은영화관에서는 최신 영화를 함께 관람하며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참여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려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옹기가 생겼다”며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하반기에도 고독사 예방 중장



고흥군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팔영산 치유의 숲에서 ‘고독사 예방 중장년 1인 가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년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이장·여성자원봉사회원 15명 보성군, ‘생명 도우미’ 위촉 응급상황 대비 신속대응 교육

보성군이 지난 11일 마을 이장과 여성자원봉사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교육하고 이들을 ‘생명도우미’로 위촉했다.

‘생명도우미’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해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구급차 도착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에서 끝타임을 확보하고 주민 스스로가 생명 보호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교육은 보성소방서와 연계해 심폐소생술



보성군보건소가 ‘생명도우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 교육 강사의 체계적인 교육하에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지하게 임했다.

보성군보건소 관계자는 “보성군민이 주체가 되는 생명 안전망 구축의 시작”이라며 “생명도우미의 활동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도우미’ 위촉된 인원은 향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에게 응급처치 교육과 AED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주민 소통 유난히 좋은 날’ 행사 재개

곡성군이 지난 10일 겸면 남양·칠봉·흥북·신흥·상덕 5개 마을회관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유난히 좋은 날’ 행사를 개최했다.

‘유난히 좋은 날’은 군수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지역 현안과 생활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이다.

당초 지난 3월 계획된 이번 행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잠정 연기된 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6월 초 다시 열려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폐비닐 수집장 CCTV 설치 ▲마을회관 야외화장실 보수 ▲마을회관 내부 리모델링 ▲마을회관 주변 경관 정비 ▲가로등 설치 요청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군에서는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 여부를 개별 안내하고, 추진상황 점검과 사후 관리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곡성=박소영 기자 psk8210@kwangju.co.kr

순천시 여름철 폭우·태풍 대비 ‘선제 대응’

빗물받이·우수 맨홀 점검

순천시가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도로변 빗물받이와 하수도 맨홀 등 배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재난 양상이 대규모 및 다양화, 복잡

화 됨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풍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주요 도로변 빗물받이 3만개소를 점검하고, 준설이 필요한 2만개소에 대하여 준설을 완료했다. 또 상습침수구역 374개소에 위치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우수맨홀 3000개소 등의 전수점검 및 사전 준설작업을 마쳤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빗물받이와 우수관로의 퇴적물 및 나무뿌리 제거를 위해 긴급 예산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시행 중이며, 자율방재단과 이·동장, 마을지킴이 등과 민간협업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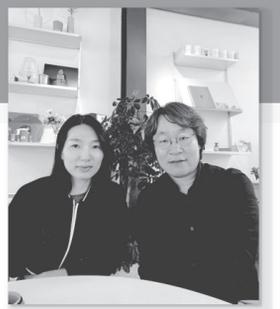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